

2019년 9급 서울시 2회 【국어】 기출 문제 해설

▶출제 영역 분석

영역	분야	문항	출제 내용
이론 문법	총론	1	• 언어의 특성(1)
	형태론	1	• 품사의 판별(1)
	문장론	1	• 문장 성분(1)
실용 문법	한글 맞춤법	4	• 복합 문제/단어 표기(2) • 준말(1) • 띄어쓰기(1)
	표준 발음법	1	
	로마자 표기법	1	
	외래어 표기법	1	
현대 문학	현대 시	3	
	현대 소설	1	
고전 문학	시조	2	• 시조(1) • 시조 복합(1)
	한글 창제의 원리	1	
비문학	독해	2	• 내용 추론(1) • 문맥적 의미 파악(1)
어휘, 한자	한자 성어	1	• 한자 성어(1)

01.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 ① dot - 닷 ② parka - 파카
③ flat - 플랫 ④ chorus - 코루스

해설

- ② 'parka - 파카'는 바른 표기이다.
▶ 파카: 에스키모가 입는, 후드가 달린 모피 옷 / 후드가 달린 짧은 외투. 겨울옷으로 솜이나 털을 넣어 두껍게 만든다.
① dot - 닷(x) → 도트(○)
③ flat - 플랫(x) → 플랫(○)
④ chorus - 코루스(x) → 코러스(○)

>>정답 ②

02. <보기>의 ㉠~㉢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다락골 ㉡ 국망봉
㉢ 낭림산 ㉣ 한라산

- ① ㉠ - Dalakgol ② ㉡ - Gukmangbong
③ ㉢ - Nangrimsan ④ ㉣ - Hallasan

해설

- ㉠ Hallasan[할:라산](○):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① ㉠ Dalakgol(x) → Darakgol(○): 'ㄹ'은 모음 앞에서는 'ㄹ'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ㄴ'로 적는다. 모음 앞의 'ㄹ'이므로 'ㄹ'로 적는다.
② ㉡ Gukmangbong(x) → Gungmangbong(○):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③ ㉢ Nangrimsan(x) → Nangnimsan[낭:님산](○):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정답 ④

03. <보기>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를 버혀 내어
(㉡)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꼴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 ㉡
① 허리 春風
② 허리 秋風
③ 머리 春風
④ 머리 秋風

해설

<보기>는 임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 황진이의 시조이다. 화자는 동지의 긴 밤을 잘라 내어 이불 아래 두었다가 임이 오신 날 밤에 퍼겠다고 말하고 있다. 추상적 대상인 시간(긴 밤)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잘라내겠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에는 사물의 중간을 의미하는 '허리'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또 화자는 잘라낸 동지의 긴 밤을 사랑하는 임이 오신 날 밤 퍼겠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따뜻한 봄바람을 의미하는 '春風(춘풍)'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정답 ①

0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 꺼져 간다.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해설

- ③ 떠내려가√가버렸다(x) → 떠내려가√버렸다(○): 이 문장에서 '버리다'는 보조 용언이다.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떠내려가다'는 합성 동사이므로 '떠내려가√버렸다'로만 써야 한다.
① 꺼져√간다(○, 원칙) / 꺼져간다(○, 허용): '가다'는 보조 용언이다.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② 아는척한다(○, 허용) / 아는√척한다(○, 원칙): '척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

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④ 올√듯도√하다(○):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을 때에는 붙여 쓰지 않는다. [올듯도하다(x)]

>>정답 ③

05. 맞춤법 사용이 옳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웃어른, 사흔날, 베갯잇
② 닐리리, 남존녀비, 헤택
③ 적잖은, 생각건대, 하마터면
④ 홀몸, 밋밋하다, 선율

해설

- 닐리리(x) → 날리리[날리리](○):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ㄹ’로 적는다.
- 남존녀비(x) → 남존여비(男尊女卑)[남존녀비](○):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헤택(x) → 혜택(惠澤)[혜:택/혜:택](○): ‘혜’의 ‘ㄷ’은 ‘ㄷ’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ㄷ’로 적는다.

>>정답 ②

06.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해설

- 밑줄 친 부분은 모두 격조사 자리에 쓰인 보조사이다. 따라서 이들 보조사를 격조사로 바꾸어 보면 문장 성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②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와 같이 주격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나머지 ①·③·④는 모두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였다.
① 밥도(밥을) 안 먹다.
③ 물만(물을) 주었다.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사투리를) 싫어하다.

>>정답 ②

07.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 ① 새까맣다 - 싯퍼렇다 - 섯노랗다
② 시뻘경다 - 시허엿다 - 싯누렇다
③ 새퍼렇다 - 새빨강다 - 섯노랗다
④ 시하얇다 - 시껴맣다 - 싯누렇다

해설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시뻘경다 - 시허엿다 - 싯누렇다’이다.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시-’는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ㄴ, ㄷ’인 색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 앞에 붙으므로 ‘시뻘경다, 시허엿다’는 바른 표기이다. ‘싯-’은 어두음이 유성음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ㄴ, ㄷ’인 색채를 나타내는 형용사 앞에 붙으므로 ‘싯누렇다’ 역시 바른 표기이다.

한편, ‘새-’는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ㄴ, ㄷ’인 색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 앞에 붙는다. ‘싯-’은 어두음이 유성음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ㄴ, ㄷ’인 색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 앞에 붙는다.

- ① 싯퍼렇다(x) → 시퍼렇다(○):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ㄴ, ㄷ’인 색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 앞이므로 ‘시-’가 와야 한다.
③ 새퍼렇다(x) → 새파랗다(○), 시퍼렇다(○)
④ 시하얇다(x) → 시허엿다(○), 새하얇다(○)

>>정답 ②

08.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중략] ~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① 편견(偏見) ② 불화(不和)
③ 오해(誤解) ④ 독선(獨善)

해설

출전 이희중, 《나는 나를 간질일 수 없다》
해설 <보기>에서 화자는 서로 대비되는 생각이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즉 나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성향을 지닌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시의 제목은 ‘편견’이 가장 적절하다.

- ▶편견(偏見):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② 불화(不和): 서로 화합하지 못함. 또는 서로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함.
③ 오해(誤解):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
④ 독선(獨善):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이희중, <편견> 전문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지금 대통령이 잘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로또 복권을 사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자동차를 몰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정답 ①

-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 狐假虎威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晚時之歎
- ③ 언 밭에 오줌 누기 - 雪上加霜
- ④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 目不識丁

- 晩時之歎(늦을 만, 때 시, 갈 지, 탄식할 탄): 시기에 늦어 기

>>정답 ③

② 亡
④ 天

>>정답 ①

>>정답 ③

㉠)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 데 평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뻔뻔질뻔하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

㉡

- ① 원로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② 아쉬운 서로가 만족하게 될 실리가
③ 시인 잠깐의 수고로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④ 입에 발린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해설

<보기>는 박완서의 단편 소설 <그 여자네 집>이다.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로 보아, '나'가 시를 낭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문학계의 '원로'이기 때문이다. 또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로 보아 '나'가 시 낭송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이유는 좋아하는 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는 '원로'가, ㉡에는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정답 ①

13. <보기>의 밑줄 친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 비해 완곡함은 뜸을 들이면서 에두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껴갈 틈을 준다.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곱씹어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 갈진대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망한 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막힐수록 옛것을 더듬으라고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다산은 선인들이 왜 산을 바라보면 즐기되 그 흥취의 반을 항상 남겨두는지 궁금했다. 그는 미인을 만났던 사람이 적어놓은 글에서 그 까닭을 발견했다. 그가 본 글은 이러했다.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그 자태는 기록하지 않았다.'

- ① 틈 ② 공간
③ 여지 ④ 세상



해설

문맥적 의미가 다르게 쓰인 어휘를 찾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는 사람을 단숨에 제압하는 '직설'과 '완곡한 말과 글'을

대비하고 있다. 완곡한 말과 글은 '듣고 읽는 이가 비껴갈 틈을 주고',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는 것이다. 또 완곡한 말과 글이 사라지면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게 된다. 따라서 '틈', '공간', '여지'는 모두 완곡한 말과 글이 주는 효용성과 관계된다. 그러나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세상'은 극으로 나뉘었다는 점에서 '틈, 공간, 여지'가 없는 '직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정답 ④

14.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섬섬지 ② 혼타
③ 익숙치 ④ 정결타



해설

③ 익숙치(×) → 익숙지(○): <한글 맞춤법> 제40항의 준말에 대한 문제이다. 핵심은 어간의 끝음절 '하'의 앞을 보는 것이다. 앞에 올림소리가 있으면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고, 앞에 안올림소리가 있으면 '하'가 탈락되므로 '익숙지'로 준다.

① 섬섬지(○):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②·④ 혼타(○), 정결타(○):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정답 ③

15.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보기 1>

- (가) '방송(放送)'은 '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나)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뱌]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뱌'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다)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보기 2>

- ㉠ 규칙성 ㉡ 역사성 ㉢ 창조성 ㉣ 사회성

- ① (가) - ㉡ ② (나) - ㉢
③ (다) - ㉣ ④ (라) - ㉠



해설

(라)는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의성이란 언어의 형식인 음성과 내용인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아닌 자의적 관계만 존재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각 언어마다 표현하는 형

식이 다르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언어의 규칙성은 단어가 규칙에 맞게 배열되어야만 언어로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언어의 규칙성은 언어가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한다.

- ① '방송'이라는 말이 의미가 변하였다는 것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의 예이다.
- ② (나)는 음성과 의미가 일단 사회적 약속으로 수용되면 개인이 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예이다.
- ③ 인간이 동물과 달리 기존의 단어를 배열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④

16. <보기>의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운 계절의 ㉠젯죽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쌀 칼날진 ㉢그우에서다

어테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한발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갯가보다

-이육사, <절정>

- ① ㉠: 채찍 ② ㉡: 마침내
- ③ ㉢: 그 위 ④ ㉣: 재겨 디딜

해설

이육사의 <절정>은 남성적 어조로 극한의 현실에 대한 초극 의지를 드러낸 시이다. ㉡ '재겨디딜'에서 '재겨'는 '발끝이나 뒤꿈치로 겨우 땅을 디디'의 의미로 표준어는 '재겨'이다. 즉 "한발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는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④

1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① 조국아 / 한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 남의 발톱에 주어본 적 / 없었나니 -신동엽, <조국>
- ② 아사달과 아사녀가 /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 부끄럼 빛내며 / 맞질할지니 -신동엽, <껌테기는 가라>
- ③ 꽃피는 반도는 / 남에서 북쪽 끝까지 / 완충지대 -신동엽,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
- ④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 붉은 발명 낫다커니 / 붉은 위독하다커니 -신동엽, <봄의 소식>

해설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억압적인 역사에 대한 비판과 자유와 평화의 세계에 대한 갈망을 노래한 시이다. 여기서 '하늘'은 진실 혹은 인간 본연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의미한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 '쇠항아리'는 진실을 가리는 허위, 혹은 인간 본연의 삶을 억누르는 외부적 요소를 의미한다. ①의 '발톱'은 조국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외부 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의 ㉠과 ①의 '발톱' 모두 부정적인 외부 요소를 의미하는 시어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①·②·③·④는 모두 신동엽의 작품이다. 1960년대에 주된 작품 활동을 했던 신동엽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민중의 저항의식을 형상화하는 시를 썼다. 특히 4·19 혁명의 의식,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그의 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② '중립의 초례청'은 이념의 대립을 뛰어넘은 화합의 장을 의미한다.

▶초례청(醕禮廳): 초례를 치르는 장소

③ '완충지대'는 분단의 갈등을 넘어선 화해를 의미한다.

▶완충 지대(緩衝地帶): '정치' 대립하는 나라들 사이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립 지대

④ '봄'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혹은 평화를 의미한다.

>>정답 ①

18.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 장모음 표시임.)

- 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 물난리[물랄리]
- ②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 신문[심문]
- ③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 밟는다[밥:는다]
- ④ 날씨가 벌써 한여름과 같다. - 한여름[한녀름]

해설

② '신문'의 표준 발음은 [신문]이다. 수의적으로 역행 동화된 발음, 연구개음화, 양순음화 등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① 물난리[물랄리]: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③ 밟는다[밥:는다]: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한다. 받침 'ㅂ'은 'ㄴ', 'ㄹ'앞에서 [ㅁ]으로 발음한다.

④ 한여름[한녀름]: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여'인 경우에는 'ㄴ'

을 첨가하여 [녀]로 발음한다.

>>정답 ②

19.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냐 하세요.”
라고 한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 ①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 ③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이다.
- ④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해설

<보기>는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로, 1960년대를 배경으로 뚜렷한 가치관을 지니지 못한 도시인들의 방향과 연대감 상실을 그린 단편 소설이다. <보기>는 아저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개인주의적이고 연대 의식이 상실된 도시생활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가 아저씨의 요청을 외면한 후 “꿈도 안 꾸고 잘 잤다”는 데에서 타인에게 무관심한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잠’이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동경을 환기한다는 ③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① 이 소설은 서울의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나’와 ‘안’, 그리고 이들과 자신의 고뇌와 비애를 나누기를 바라는 아저씨(사내)의 동행을 그리고 있다. 서울 거리를 배회하는 이들의 모습은 도시의 권태로움을 드러낸다. 또한 아내의 시체 판 돈을 버리는 사내의 행위는 비인간적인 도시의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②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는 노출을 꺼리고 익명의 존재로 있고자 하는 도시인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정답 ③

20.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

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① 십년 ㄱ은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미라.
관산(關山)을 바라보며 제세로 묻져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닌 세에 드리울고.
- ② 구곡(九曲)은 어드미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속에 못첫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호고 불셋없다 흐드라.
- ③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침지 아니힘도 역군은(亦君恩)이쌔다.
- ④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너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해설

밑줄 친 부분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는 <보기>의 주지를 담고 있다. ④는 이황의 <도산십이곡>의 언학 중 한 수로, 여기서 ‘고인’은 학문과 덕이 높은 성현을 의미한다. 즉 ④는 성현들의 학문 수양의 길을 따라 자신도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도산십이곡>은 총 12수로, 전 6수는 언지(言志) 즉 자연과 동화된 생활을 하면서 사물에 접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고, 후 6수는 언학(言學) 즉 학문 수양에 임하는 심경을 노래한 것이다.

▶성현(聖賢):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① 이순신의 시조로, 우국충정(憂國忠情)과 장부의 호탕한 기개를 주제로 한다.
- ② 이이의 <고산구곡가> 중 한 수로, 고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고 있다.
- ③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중 ‘동사(冬詞)’로, 안빈낙도 하며 임금의 은혜를 예찬하고 있다.

>>정답 ④

受驗生 여러분의合格을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김정진 선생 제공-

